

1 움베르토 에코, 푸코의 추, 아나그램

나는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추』 번역본¹을 초판으로 가지고 있다. 옛날 이 제목이 『푸코의 진자』로 제대로 바뀌었지만 나는 “푸코의 추”만을 읽었다.

이 책 상권 p. 50에 나오는 한 대목.

벨보가 디오탈레비의 말허리를 잘랐다.

“이것 봐, 알테지. 그런다고 내가 겁먹지 않는다는 걸. 겁먹는 것 좋아하네. 나는 아불라피아(이 기계를 아불라피아라고 부르기로 했네)를 부리네. 선현들이 골렘(역주: 유대 전설에 나오는, 생명을 얻었다는 진흙 인형)을 부렸듯이 나는 아불라피아를 부리네. 골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불라피아는 조심스럽고, 고분고분하고, 점잖은 걸 꼽을 수 있지. 문제는 하느님 이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의 수였지? 네 개의 문자로 가능한 시퀀스를 모두 뽑아 내는 베이직 프로그램을 쓰면 문제는 간단해. YHVH를 위해 특별 주문한 베이직 프로그램 같지. 어디 해 볼까?”

벨보는 디오탈레비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었다. 디오탈레비는 수수께끼 같은 명령어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벨보가 아불라피아에게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²

```
1 10 REM anagram
2 20 INPUT L$(1), L$(2), L$(3), L$(4)
3 30 PRINT
4 40 FOR I1=1 to 4
5 50 FOR I2=1 to 4
6 60 IF I2=I1 THEN 130
7 70 FOR I3=1 to 4
8 80 IF I3=I1 THEN 120
9 90 IF I3=I2 THEN 120
10 100 LET I4=10-(I1+I2+I3)
11 110 LPRINT L$(I1); L$(I2); L$(I3); L$(I4)
12 120 NEXT I3
13 130 NEXT I4
```

¹움베르토 에코, 이윤기(옮김), 『푸코의 추』, 도서출판 열린책들, 초판 제1쇄, 1990.

²내가 가진 책에는 30번 행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정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림 1에 무엇이 이상한지 나와 있을 것이다.

```

    청진 청화여고 학생이네, 소통들이 물론 청진여 출신이 멘션하는 글자 부
    터, 이 신작주의적인 논리와 세계관 그대로 속자의 책임임에, 이것은
    사실적 흥미이다. 하지만 그동안에서, 아주 천연의 이 책임을 해야 하네,
    거야. 창작하면 자네의 기제가 서리에게 막기고 결론 결신당한 후우우
    이 아느님과 결심장내 (盟約場内)의 환경은 수가 있으니깐 아름라비어지
    세자들 대다수는 아느님의 이름을 복성하는 일과, 이작 (盟約)을 해주는
    일 사건으로 난 걸을 만들면서 결을 수가 없었어. 그들은 아느님의 이름
    을 성장한 해나 찾던 것이다. 서리를 통해 지금 (盟約場内)에 있는
    대, 모든 사람을 디스는는 대 필요한 도구로 편밀 것이다. 각각의 글자
    가 그 글자로 이루어낸 사물에 열려 있단다 사실을 모르는 제(子)네 역
    서 이런 것도 모른다네. 기제를 다루고 있거먼, 그 글자의 끝이 그 글
    자로 드러나는 사물을 전달하우며, 그 위치에 혹은 그 성격에 알리나
    험난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제(子)글자는 이걸로 드러나는 사물의
    형상을 일그리는데 아주 괴롭고 단념이 되질 수가 있다. 자동이 위기를
    이용대로 바꾸고 있는 경이네, 물리적으로는 경쟁, 정신적으로는 영친
    데... .

    행보가 디오탈레비의 영향력을 알았다.

    「이것 와, 알세자, 그런다고 내가 강하게 많았다는 걸, 경의는 것 좋
    아파해, 나는 아름라비아의 기제를 아름라비아하고 부르기로 했네!」를
    부리네, 선형들이 공명하고, 유색 전성에 나오는, 생명을 엿보는 진흙 흰빛
    을 부린들이나 나는 아름라비아를 부리네, 공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불
    아비아는 조심스럽고, 고를고분하고, 징검은 걸 풀을 수 있지, 문제는
    아느님 이름을 구성하는 새 필요한 경우의 수였지? 네 개의 문자로 가
    능한 시퀀스를 모두 뽑아 내는 레이저 프로그램을 뽑은 문제는 신단해,
    YHIV를 위해 특별 주문한 레이저 프로그램 같지, 어디 해 불까?」

    행보는 디오탈레비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었다. 디오탈레비는 수
    수가 기쁜 명령어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10 REM a=aaaabb
    20 INPUT L$(1),L$(2),L$(3),L$(4)30 PRINT
    30 주로의 주

```

```

    40 FOR I1=1 TO 4
    50 FD 12+1 TO 4
    60 IF 12>11 THEN 130
    70 FOR I2=1 TO 4
    80 IF I2>11 THEN 120
    90 IF I3>12 THEN 120
    100 LET I4=10-(I1+I2+I3)
    110 LPRINT L$(I1)+L$(I2)+L$(I3)+L$(I4)
    120 NEXT I3
    130 NEXT I2
    140 NEXT I1
    150 END

```

『자네가 직접 한번 일기시끼 보제, 기제가 요구하는 대로 Y, H, V, H
를 입력시키고 나서 (설령) 키를 두드리는 걸제, 하지만 실행할 걸, 이
내 글자로 가능한 경우의 수는 스물네 개밖에 안될테니까.』

『하느님 앱소사! 스물네 개의 경우의 수 가지고 될 한다는 거야? 예
날의 현자들 역시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았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제
페로 예시나, 제42~16장을 봐. 이들에게는 컴퓨터가 있었어. 그런데
도 이런 구절이 있어. 「두 개의 물에이로는 두 채의 징을 짓는다. 세 개
의 물에이로는 여섯 채의 징을 짓는다. 네 개의 물에이로는 스물네 채
의 징을 짓는다. 다섯 개의 물에이로는 백스물다섯 채의 징을 짓는다.
여섯 개의 물에이로는 6백스무 채의 징을 짓는다. 일곱 개의 물에이로
는 5천마흔 채의 징을 짓는다. 어디 이것뿐이겠느냐. 일이 많힐 수 없
고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요새 말로 이런 뭐
라고 하는지 이나? 인자분석책주 : 河子著, 일련의 테스트에서, 일찍이 신
체적 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인자를 종례하는 통계학의 한 방법이라고 하네. 경
치인들은 인간에게 이 이상의 계산을 굽히고 있는데 자네 그 까닭을 알
아? 하느님의 이름이 여덟 자로 되어 있으니깐 경우의 수는 40,320이 되
고, 열 자로 되어 있으면 경우의 수는 3,628,800…… 자네 이름, 그 이름과 성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는 자그만치 4백만이 되네. 미국인
들처럼 미를네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나? 그러면 경우의 수는 4
이이 넘어, 만일에 하느님의 이름이 스물일을 자(자브리) 알과벳에는 모

라고마 51

그림 1: 『푸코의 추』, pp. 50f.

14 140 NEXT I1
15 150 END

그리고 이걸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YH VH	YHHV	YV HH	YV HH	YHHV	YHV H	HY VH	HY HV
HV YH	HV HY	HH YV	HH VY	VY HH	VY HH	VH YH	VH HY
VH YH	VH HY	HY VH	HY VY	HH YV	HH VY	HY VH	HY VY

2 LATEX의 for-loop文

이걸 T_EX으로 하면 어떨까? 만약 벨보가 T_EX을 알았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for-루프가 필요한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forloop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이 패키지의 \forloop 문은 ifthen 패키지를 이용하여 for문을 구현해준다.

```

1 \def\AnaChar#1{%
2   \ifcase#1\or Y\or H\or V\or H\or \fi
3 }

```

```

4
5 \newcounter{i}\newcounter{j}\newcounter{k}\newcounter{l}
6 \forloop{i}{1}{\thei<5}{%
7   \forloop{j}{1}{\thej<5}{%
8     \ifthenelse{\equal{\thei}{\thej}}{}{%
9       \forloop{k}{1}{\thek<5}{%
10      \ifthenelse{\equal{\thei}{\thek}}{}{%
11        \ifthenelse{\equal{\thej}{\thek}}{}{%
12          \setcounter{l}{\numexpr10-(\thei+\thej+\thek)\relax}%
13          \AnaChar{\thei}\AnaChar{\thej}\AnaChar{\thek}\AnaChar{\thel}%
14          \qquad
15        }}}}}%
16 }

```

몇 페이지 뒤에, 주인공 까조봉³이 벨보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여섯 글자에 대하여 확대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장면이 있다. i, a, h, v, e, h를 가지고 까조봉이 만든 순열은 다음과 같다. 이 결과를 인쇄하는 것으로 소설 세 페이지를 잡아먹고 있다.

다음은 위에 적은 \TeX 아나그램 코드를 확장하여 까조봉이 하였던 일을 재현한 것이다. 코드 자체는 이 글 끝에 붙여둔다.

iahveh	iahvhe	iahevih	iahehv	iahhve	iahhev	iavheh	iavhhe
iavehh	iavehh	iavhhe	iavheh	iaevh	iae hh	iae vhh	iae vhh
iae hh	iae vh	iahhve	iahhev	iahvhe	iahveh	iahehv	iahevih
ihaveh	ihavhe	ihaevh	ihaehv	ihahve	ihahev	ihvaeh	ihvahe
ihveah	ihveha	ihvhae	ihvhea	iheavh	iheahv	ihevah	ihevha
ihehav	ihehva	ihhave	ihhaev	ihhvae	ihhvea	ihheav	ihheva
ivaheh	ivahhe	ivaehh	ivaehh	ivahhe	ivaheh	ivhaeh	ivhahe
ivheah	ivheha	ivhiae	ivhhea	iveahh	iveahh	ivehah	ivehha
ivehah	ivehha	ivhahe	ivhaeh	ivhiae	ivhhea	ivheah	ivheha
ieahvh	ieahhv	ieavhh	ieavhh	ieahvh	ieahvh	iehavh	iehahv
iehvah	iehvha	iehhav	iehhva	ievahh	ievahh	ievhah	ievhha
ievhah	ievhha	iehahv	iehavh	iehhav	iehhva	iehvah	iehvha
ihahve	ihahve	ihavhe	ihaveh	ihaevh	ihaevh	ihhave	ihhaev
ihhvae	ihhvea	ihheav	ihheva	ihvah	ihvah	ihvhae	ihvhea
ihveah	ihveha	iheahv	iheavh	ihehav	ihehva	ihevah	ihevha
aikhve	aikhvhe	aihevih	aihehv	aihhve	aihhev	aivheh	aivhhe
aivehh	aivehh	aivhhe	aivheh	aiehv	aiehhv	aievhh	aievhh

³내가 가진 판본에서는 이렇게 읽고 있다. 주인공 이름들의 독법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이 나중에 나온 같은 역자의『푸코의 진자』에서 수정된 것으로 안다.

aiehhv	aiehvh	aihhve	aihhev	aihvhe	aihveh	aihehv	aihevh
ahiveh	ahivhe	ahievh	ahiehv	ahihve	ahihev	ahvieh	ahvihe
ahveih	ahvehi	ahvhie	ahvhei	aheivh	aheihv	ahevih	ahevhi
ahehiv	ahehvi	ahhive	ahhiev	ahhvie	ahhvei	ahheiv	ahhevi
aviheh	avihhe	aviehh	aviehh	avihhe	aviheh	avhieh	avhihe
avheih	avhehi	avhhie	avhhei	aveihh	aveihh	avehiih	avehhi
avehiih	avehhi	avhihe	avhieh	avhhie	avhhei	avheih	avhehi
aeihvh	aeihhv	aeivhh	aeivhh	aeihhv	aeihvh	aehivh	aehihv
aehvih	aehvhi	aehhiv	aehhvi	aevihh	aevihh	aevhiih	aevhhi
aevhiih	aevhhi	aehihv	aehivh	aehhiv	aehhvi	aehvih	aehvhi
ahihve	ahihev	ahivhe	ahiveh	ahiehv	ahievh	ahhive	ahhiev
ahhvie	ahhvei	ahheiv	ahhevi	ahvihe	ahvieg	ahvhie	ahvhei
ahveih	ahvehi	aheihv	aheivh	ahehiv	ahehvi	ahevih	ahevhi
hiaveh	hiavhe	hiaeuh	hiaeuh	hiahve	hiahev	hivaeh	hivahe
hiveah	hiveha	hivhae	hivhea	hieavh	hieahv	hievaah	hievahe
hiehav	hiehva	hihave	hihaev	hihvae	hihvea	hiheav	hiheva
haiveh	haivhe	haievh	haiehv	haihve	haihev	havieh	havihe
haveih	havehi	havhie	havhei	haeivh	haeihv	haevih	haevhi
haehiv	haehvi	hahive	hahiev	hahvie	hahvei	haheiv	hahevi
hviaeuh	hviaeuh	hvieah	hvieha	hvihae	hvihea	hvaeih	hvaihe
hvaeih	hvaehi	hvahie	hvaeih	hveiah	hveiha	hveaih	hveahi
hvehia	hvehai	hvhae	hvheia	hvhaie	hvheai	hvheia	hvheai
heiavh	heiavh	heivah	heivha	heihav	heihva	heavih	heaihv
heavih	heavhi	heahiv	heahvi	heviah	heviha	hevaih	hevahi
hevchia	hevhai	hehiav	hehiva	hehaiv	hehavi	hehvia	hehvai
hhiaeuh	hhiaeuh	hhivae	hhivea	hhieav	hhieva	hhiaeuh	hhiaeuh
hhavie	hhavei	hhaeiv	hhaevi	hhviae	hhviea	hhvaih	hhvaei
hhveia	hhveai	hheiav	hheiva	hheaiv	hheavi	hhevia	hhevai
viaeuh	viaeuh	viaeuh	viaeuh	viahhe	viaeuh	vihaeh	vihahe
viheah	viheha	vihae	viheah	vieahh	vieahh	viehah	viehha
viehah	viehha	vihae	vihaeh	vihhae	vihhea	viheah	viheha
vaiheh	vaiheh	vaihh	vaihh	vaihhe	vaiheh	vahieh	vahihe
vaheih	vahehi	vahie	vahhei	vaeihh	vaeihh	vaehih	vaehhi
vaehih	vaehhi	vahihe	vahieh	vahhie	vahhei	vaheih	vahehi
vhiaeuh	vhiaeuh	vhieah	vhieha	vhihae	vhihea	vhaieh	vhaihe
vhaeih	vhaehi	vhahie	vhahei	vheiah	vheihh	vheaih	vheahi
vhehia	vhehai	vhhae	vhheia	vhhaie	vhhaei	vhheia	vhheai

veiahh	veiahh	veihah	veihha	veihah	veihha	veaihh	veaihh
veahih	veahhi	veahih	veahhi	vehiah	vehiha	vehaih	vehahi
vehhia	vehhai	vehiah	vehiha	vehaih	vehahi	vehhia	vehhai
vhiae	vhiae	vhiiae	vhihea	vheah	vheha	vhaihe	vhaieh
vhahie	vhahei	vhaeih	vhaehi	vhhiae	vhhiea	vhhaie	vhhaei
vhheia	vhheai	vheiah	vheih	vheah	vhehi	vhehia	vhehai
eiahvh	eiahhv	eiavhh	eiavhh	eiahv	eiahvh	eihavh	eihahv
eihvah	eihvha	eihhav	eihhva	eivah	eivahh	eivhah	eivhha
eivhah	eivhha	eihahv	eihavh	eihhav	eihhva	eihvah	eihvha
eaihv	eaihv	eaivhh	eaivhh	eaihv	eaihv	eahivh	eahihv
eahvih	eahvhi	eahhiv	eahhvi	eavih	eavihh	eavhah	eavhhi
eavhah	eavhhi	eahihv	eahivh	eahhiv	eahhvi	eahvih	eahvhi
ehiavh	ehiavh	ehivah	ehivha	ehihav	ehihva	ehaivh	ehaihv
ehavih	ehavhi	ehahiv	ehahvi	ehviah	ehviha	ehvaih	ehvahi
ehvhia	ehvhai	ehhiav	ehhiva	ehhaiv	ehhavi	ehhvia	ehhvai
eviahh	eviahh	evihah	evihha	evihah	evihha	evaihh	evaihh
evahih	evahhi	evahih	evahhi	evhiah	evhiha	evhaih	evhahi
evhhia	evhhai	evhiah	evhiha	evhaih	evhahi	evhhia	evhhai
ehiavh	ehiavh	ehihav	ehihva	ehivah	ehivha	ehaihv	ehaivh
ehahiv	ehahvi	ehavih	ehavhi	ehhiav	ehhiva	ehhaiv	ehhavi
ehhvia	ehhvai	ehviah	ehviha	ehvaih	ehvahi	ehvhia	ehvhai
hiahve	hiahev	hiavhe	hiaveh	hiae	hiae	hihave	hihaev
hihvae	hihvea	hiheav	hiheva	hivahe	hivaeh	hivhae	hivhea
hiveah	hiveha	hieahv	hieavh	hiehav	hiehva	hievah	hievha
haihve	haihev	haihve	haiveh	haihv	haihv	hahive	hahiev
hahvie	hahvei	haheiv	hahevi	havihe	havieh	havhie	havhei
haveih	havehi	haeihv	haeivh	haehiv	haehvi	haevih	haevhi
hhiae	hhiae	hhivae	hhivea	hhieav	hhieva	hhiae	hhiae
hhavie	hhavei	hhaeiv	hhaevi	hhviae	hhvica	hhvaih	hhvaih
hhveia	hhveai	hheiav	hheiva	hheav	hheavi	hhevia	hhevai
hviahe	hviaeh	hviiae	hvihea	hvieah	hvieha	hvaihe	hvaih
hvahie	hvahei	hvaeih	hvaehi	hvhae	hvhae	hvhaie	hvhaei
hvheia	hvheai	hveiah	hveih	hveah	hvehi	hvehia	hvehai
heiavh	heiavh	heihav	heihva	heivah	heivha	heaihv	heaivh
heahiv	heahvi	heavih	heavhi	hehiav	hehiva	hehaiv	hehavi
hehv	hehvai	heviah	heviha	hevaih	hevahi	hevha	hevhai

당연한 결과지만 벨보의 비밀 파일에 걸린 비번을 알아내려는 이 시도는 실패한다.

처음부터 틀렸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럴듯한, 그러나 그럴듯하지 못한 가정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컴퓨터의 이름이 아블라피아라니, 이 컴퓨터란 물건은 이 때부터 벌써 “이름의 길”에 익숙하였던 것인가? 이리저리 알파벳을 짜맞추다가 우연히 신의 이름에 이르게 되면 그 순간 컴퓨터는 신비의 길을 열어줄 것인가?

위의 여섯 글자 아나그램의 소스는 다음과 같다.

```
1 \def\AnaChar#1{%
2 \ifcase#1\or i\or a\or h\or v\or e\or h\fi
3 }
4
5 \newcounter{m}\newcounter{n}\setcounter{LineCnt}{0}
6 \forloop{i}{1}{\thei<7}{%
7   \forloop{j}{1}{\thej<7}{%
8     \ifthenelse{\equal{\thei}{\thej}}{}{%
9       \forloop{k}{1}{\thek<7}{%
10      \ifthenelse{\equal{\thei}{\thek}}{}{%
11        \ifthenelse{\equal{\thej}{\thek}}{}{%
12          \forloop{l}{1}{\thel<7}{%
13            \ifthenelse{\equal{\thei}{\thel}}{}{%
14              \ifthenelse{\equal{\thej}{\thel}}{}{%
15                \ifthenelse{\equal{\thek}{\thel}}{}{%
16                  \forloop{m}{1}{\them<7}{%
17                    \ifthenelse{\equal{\thei}{\them}}{}{%
18                      \ifthenelse{\equal{\thej}{\them}}{}{%
19                        \ifthenelse{\equal{\thek}{\them}}{}{%
20                          \ifthenelse{\equal{\thel}{\them}}{}{%
21                            \addtocounter{LineCnt}{1}%
22                            \setcounter{n}{\numexpr21-(\thei+\thej+\thek+\thel+\them)\relax}%
23                            \AnaChar{\thei}\AnaChar{\thej}\AnaChar{\thek}\AnaChar{\thel}%
24                            \AnaChar{\them}\AnaChar{\then}%
25                            \ifthenelse{\equal{\theLineCnt}{8}}{%
26                              {\setcounter{LineCnt}{0}\newline}{\quad}%
27                            }}}}{}%
28                          }}}}{}%
29                        }}}}{}%
30                      }%}
31 }
```

3 quotation 환경의 들여쓰기

LATEX의 quotation 환경은 여러 문단을 인용할 때 쓰는 것인데, 들여쓰기 값이 1.8em으로 고정되어 있다. \listparindent나 \parindent를 바꾸어봐도 잘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이 문제를 피해갔다.

```
1 \usepackage{etoolbox}  
2 \patchcmd{\quotation}{\listparindent 1.8em}{\listparindent 0pt}{}{}
```
